

부마민주항쟁 26주년 정신계승대회 “증언대회” 박정희 통치기의 국가폭력 사례

- 주 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료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4~16시
 - 장 소 :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04.

마산지역 긴급조치9호 위반

부마항쟁 피해사례

최갑순

청춘이 닳아 되어 (부마항쟁 증언)

청춘이 닳아 되어 (부마항쟁 증언)



- 최 갑 순 (당시 경남대 국어교육학과3학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면, 1979년 10월을 다시 기억하려고 여기저기서 조른지도 어언 26년째다. 마치 딱지 앓은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래도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라고 말하면 피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정희 망령은 더 극성을 부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손자를 낳았다고 일간지 마다 대서특필되고, 단지 그의 딸이라는 이유로 웃으며 손만 잡아도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는 2005년... 26년 동안 연례행사로만 기억하는 그날이 이 나라 더욱이 이 땅 이 부산 마산에서 무슨 의미인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

70년대 후반 ~ 79년 현실에 대한 인식 및 감정과 학내의 동향

나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시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6남매 막내였으므로 언니, 오빠들이 나누는 대화나 75년의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며 답답해했다. 79년은 대학 3학년이 된 나에게 이대로 참고 지내면 비겁자다 라는 감박판념이 자리 잡은 해였다. 지극히 평범한 여학생에 불과했던 나였지만 그때 당시의 신문 보도와 뉴스 등을 접할 때 마다 모른척하면 비겁하다고 양심이란 녀석이 부어졌다. 그러나 이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아무개가 어떤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우리들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양심과 싸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샌 어느 날 같은 곳에 다니던 옥정애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 친구도 나처럼 번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둘은 단짝이 되었다. 옥정애 라는 학우와 친해지면서 우리는 속에 있는 정부에 대한 생각을 털어 놓게 되었고, 반정부적인 공감대를 키워나갔다. 당시 가톨릭계에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집회가 더러 있어 참석하게 되면서 행동하지 않은 생각들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오원춘씨 양심선언을 알리는 월남성당의 집회에 참가한 후다. 그곳에서 이신모를 만났고 그도 우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뉴스는 연일 YH여공사건, 김영삼씨 가처분 신청과 그의 국회제명 등이 보도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했다. 학우들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에서도 나라의 꼴이 이래서는 안된다며 젊음의 피를 풀이는 것이 다반사였고, 국민윤리 강의 시간에는 노골적인 반정부적 발언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국민윤리 강의가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주지시키는 내용이었음) 옥정애와 함께 논의한 결과 대다수 학생들의 반응이나 일반 시민의 반응을 보건데 누군가가 불씨만 붙이면 대규모의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았다. 정애와 나는 우리가 불씨 역할을 하자고 합의했다.

- 마산 경남대 학내시위 계획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 변화 과정

당시 극예술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이윤도를 만나 그의 의사를 타진한 후에 우리의 소신을 밝혔다. 이윤도는 일단 마산의 시인이며, 우리 학교의 선배인 이선관 선생을 만나보라며 그분의 집으로 안내했다. 저녁상을 받고 있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남대학이 3선개헌 지지데모를 해서 서울의 대학생연합회에서도 끼워주질 않는다. 너희가 그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 이 시국이 끝날 때가 왔다. 우리 마산에서 3.15가 일어나 독재정권이 하나 무너졌는데, 마산의 경남대학이 유신 찬성대학으로 비춰지고 있다' 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그러나 몸조심해라며 당부했다. 우리는 심적으로 고무받고 또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자며 이신모, 이윤도, 옥정애와 의논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내 방송실을 점거해서 각 강의실 스피커를 열어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학생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다. 학보사 편집장인 김명섭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더니 너희들이 방송실로 쳐들어오면 우리는(방송국 당사자) 모른 척 피하겠다. 학보사나 방송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귀뜸해 놓겠다고 했다. 우리는 행동 날짜를 9월 28일 (혹은 30일) 첫 수업시간으로 정했다. 그 다음날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잡힐 염려가 적다는 생각에서였다. D-day 옥정애와 월영지에서 만났다. 그런데 나머지 몇 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초조해졌다. 태연한 척 첫 강의를 듣고 옥정애와 다시 대책을 세웠다.

우리는 1차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판을 하면서, 이젠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를 넓혀 많은 학생들과 의논해 보자며, 이윤도의 추천으로 정성기를 만났다. 정성기는 '국제개발과 경제과, 법학과 등에서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안다. 일단 그들을 만나보자' 고 하며 국제개발과 세미나에 데리고 갔다. 지금 기억으로 그 세미나는 위협수위를 넘나드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의미있는 질문을 하자 그들의 대답도 의미심장했다. 그 중의 신정규를 풀었다방에서 만나 정성기, 옥정애와 함께 풀었다방에서 우리의 계획을 알렸다. 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보안을 위해 신정규의 하숙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나갔다.

정성기의 제안은 - 문교부장관이 약속한 우리 학교의 종합대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주 경상대가 먼저 종합대가 되었으니 학내 집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고 촉구하자라는 것과 세부적인 계획으로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낭독하자 - 는 것이었다. 이 안이 채택된 이유는 당시 반정부적인 이슈는 중벌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안전이 위협하고 또한 두려운 나머지 학생들의 동참이 적을 것이 우려되어서였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 목적은 학우들과 마산 시민에게 유신헌법과 장기집권에 눈이 먼 현 정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 집권층과 정치권에 국민의 뜻을 전하고 나아가 독재의 종식까지 요구하는 것이었다.

신정규가 국제과의 정인권을 추천하며 그에게 반정부적인 이슈로의 전환역을 맡기기로 하자며 18일 오후 5시 가야그립에서 그를 만나자고 했다. 또 D-day를 22일로 정하고(시험날짜였으므로 동참이 많을 것을 예상) 오후 5시까지 3.15탑까지 진출하여 자유수출 퇴근시간 가까운 오후 6시까지 가야백화점까지 가서 노동자들을 참여시키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만일에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우리는 학내문제만 관련한 것으로 받을 뻔 것까지 다짐하고 신정규는 작성한 계획표를 붙여 태웠다.

그들과 헤어진 후 옥정애와 당시 수림음악실을 경영하던 김의권을 만나(반정부적인 말을 자주 했음) 자유수출에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쟁마씨를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도록 부탁했다. 또 상남성당의 김용배 신부님을 만나 등사기 사용과 만약의 경우 우리들을 피신시켜 줄 것을 약속받았다. 옥정애와 함께 국어과 최동호 교수님을 만나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라며, 너희가 다칠 것이라고 걱정 하셨다. 모두들 우리의 계획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이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희망에 찼다. 그 후 카톨릭 학생회원들에게 유인물 배포를 해 줄 것을 약속받고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받았다. 각 씨클장과 학회장들에게도 부탁했고 그들도 흔쾌히 동참할 것이라며 마주 손을 잡았다. 선배학생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모두들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었다.

- 1979년 10월 18일 마산 경남대 학내 시위상황과 참여과정

10월 17일 부산에서 어젯밤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풍문을 들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걱정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대와 우리의 계획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똥똥 뛰었다. 또한 22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 10월 18일 강의록 빼먹고 옥정애와 함께 우리의 단골집 코아 레스토랑에서 만나 거사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일처를 보고 시국선언문 작성을 서두르고 있었다. 내용은 유신과 장기집권의 부당성과 YH사건, 김영삼 제명사건 등 일련의 탄압사례를 넣고, 우리 마산이 민주정신의 산 도시며, 경남대학이 3선개헌 지지데모 등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었으므로, 이 오욕을 씻고 분연히 일어서자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쓰기로 했다.

쟁마씨와의 약속건으로 수림음악실에 전화를 했더니 누군가가 경남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데모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경남대로 가면서 거사일정을 앞당겨서 당초 계획대로 5시까지 3.15탑에 집결, 6시까지 자유수출까지 진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유도하자고 합의했다. 학교 교문 앞에는 전경들이 지키고 있었고 학생들은 쫓쫓히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전경을 지나 교문 안으로 들어간 후 입으로 입으로 5시에 3.15탑에 모이자! 6시에는 가야백 화점'을 전하며 흩어져 있던 학우들을 모아 대운동장으로 갔다. 2~3백명쯤이 모였다. 애국가와 선구자를 불렀다. 옥정애와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짤 것을 요청했다. 삼시간에 대열을 정비하고 교문을 향한 비탈길을 자유를 선창하며 민주를 추창하며 내리막길을 달렸다. 놀란 교수님들과 학생과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완강히 저항했다. 내 구두굽이 하나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책과 소지품이 더러 달아났다. 체육과의 건강한 청년이 나를 반씩 들어 교문 밖으로 내보냈다. 운동화를 사 신고 정신을 차린 후 택시를 타고 3.15탑 앞에 내렸다. 4시 반쯤인 것 같았다. 학생은 한명도 없고 전경 약간이 탑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다. 막막한 가운데서, 지나가는 버스에 가득 타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았다. 원피스 위에 걸치고 있던 바바리를 벗었다.(나중에 혹시 잡히면 2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시내행 버스에 올라 경남대학생 모두 내려 3.15 회관 앞에 숨으라고 하곤 바바리를 입고 진해행 버스에 올라 또 학생들을 모았다. 바바리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며 몇 차례 양 방향의 학생들을 모으니 2~3백명이 되었다. 누군가가 학생 일부가 산복도로를 타고 3.15탑 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우리들은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몽고간장 쪽으로 행진했다. 몽고간장 옆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가는 길에서 정애를 만났다. 우리는 무사하구나 하고 반기며 이전 대열을 정비하고 스크럼을 짜야했다. 4~5백명쯤으로 학생들이 늘어났다.(산복도로에서 내려오던 학생들과 합류한 것) 옥정애와 나는 선두에 서서 대열을 정비케 하고 구호와 노래를 지시하고 있었다.

- 구속, 심문 과정

그 때 등 뒤에서 "요년들" 하는 소리와 함께 억센 손이 우리 둘의 긴 머리카락을 한 손에 움켜쥐었다. 경찰들은 정애와 나의 옷을 찢고 시멘트 바닥에 드러누운 우리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서 차에 태웠다. 그때 한 여학생이 내 신발을 주워 들고 내 치마를 바로잡아 주려다가 차에 억지로 태워졌다. 화학과 1학년 과승언이다. 우리를 구출하려던 남학생 몇 명도 같이 태워졌다. 차가 마산경찰서를 향해 출발하자 돌맹이 몇 개가 던져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입구에서 보호실까지 늘어서 있던 경찰들이 심한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었다. 보호실에는 학내시위에서 잡혀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잠시 후 정성기도 잡혀 왔다. 정성기, 옥정애, 나 셋은 그동안 결과를 얘기하며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보호실은 만원이 되어 갔고 시내상황은 과출소가 불타는 등 시민의 대거 협조로 4.19를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 한밤중에 나와 옥정애, 정성기는 4층으로 끌려가 각각 조사를 받았다. - 계획대로 종합대학 승격 누락 문제 - 만을 주장하며 학내시위 계획은 세웠지만 시내진출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 잡혔다고 받을 뻔했다. 그들은 우리를 시위주동자 서열의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림표를 작성했다. 옥정애와 나는 자칭 중앙정보부 요원들 앞에 끌려갔다. 그때 '불꺼라' 하며 깜깜해지더니 돌맹이가 창문을 깨뜨렸다. 시위대가 경찰서 앞까지 왔다. 한 사람이 우리들을 창가에 끌고 가더니 저것이 너희가 말하는 자유고 민주냐며 소감을 물었다. - 저 부분은 우리들 책임이 아니다. - 그 책임소재는 너희들이 더 알 것이라며 응수했다.

시위대가 몰려나고 우리들은 보호실로 내려왔다. 그곳은 최루탄가스가 가득했었다. 부상당한 경찰들이 보복하기 위해 우리들을 무지막지하게 구타해댔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취조와 심문에도 우리는 교내시위 계획만을 말했다. 덕분에 우리의 조서는 혐의사실이 거의 부인된 축소된 것으로 후에 마산항쟁이 무계획하고 우발적인 경찰의 과잉대처에서 일어난 것으로 과소평가되는 빌미를 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무서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말 할 수 없었다. 그럴 경우 우리의 미래와, 연루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입을 무겁게 지켰다. 정인권이 잡혀온 후에 우리는 다소 편안해졌다. 그는 모든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었고, 담담하게 대처하여 그들이 만든 우리 조직의 제일인자가 되어 있었다.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보호실에 비하면 특실이였다. 간통, 절도 등으로 잡혀온 여자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내가 상상하던 범인들의 모습과 달랐다. 우리를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 나를 취조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이 더 인간다웠다. 애인과 데이트하다 잡힌 여공 심점분, 악세사리점을 하며 학생들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경찰에게 맥주병을 던진 언니, 특히 과승언이 취조나갔다. 울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 애는 조그만 덩치지만 다부졌다. 정치적인 소신도 있었고, 나를 죄책감에서 구해주려 애썼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애를 변호했지만 마산교도소까지 같이 갔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유치장속은 화기애애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 서로의 고통을 잊도록 노력했다. 여공 박자점은 우리를 애타게 했다. 그녀는 당일 생일이라 애인과 데이트하다 도로가 막혀 택시에서 내려 뛰다가 잡혔다는 것이다. 애인은 구류 29일을 살다가 석방되고, 그녀는 부산까지 우리와 함께 갔다가 계엄사로 넘겨져 혼자 남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방에서 나왔다는 돌맹이는 내가 얼마 전 태종대에서 주워 가방에 넣고 다니던 것인데, 폭력시위에 가담한 증거물로 둔갑하여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조직의 여성노동자 하수인이라는 도표를 그리기 위해 구색 맞추는 희생물이였다. 그녀는 이 시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군인들이 파견되어 왔다. 그들은 취조실로 가는 길에서 군화밭로 하복부등을 짓밟았다. 옥정에, 광승언, 나, 셋은 동시에 생리대를 찾았다. 그러나 각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한 적이 없다. 이젠 몸뚱이도 무감각해져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심리상대는 불안정해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름대로 덜 맞는 방법을 연구했다. 너무 참지 말 것, 너무 업살도 부리지 말 것, 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그들은 만족해하며 적게 때린다.

너무나 무섭고 긴 하루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취조실문 "자유, 민주, 좋지" "너 자유가 없어 뭘 못했나 보지" - 00형사

"애 처년가 봐라" "자유가 없어 뭘 못했는가"

"지난 여름 방학에 해운대에서 서00(남민전 연류자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라는 남자를 만났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내 보내 주겠다."

"니가 아니면 니 친구 옥정애가 만났다는 것을 들었다고만 해라."

"가장 친한 친구를 말하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나는 소설책 제목만 나열했고, 친한 친구는 옥정에 뿐이다로 일관했다.

맹맹이 가톨릭신도 주제에 때 순간 기도 했다.

"...내 입을 당신이 주관해 주시라고..." 차츰 강도가 높아지는 구타,욕설, 고문에

"차라리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조직도에서 우리의 위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금방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감쪽같이 죽일 수도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냥 해운대에서 서씨를 만났다고만 하면 내보내 준다는 대도 미련하게 (니 신세 조지고, 너거 집안도 속대밭이 될 텐데) 왜 버티나?"

남민전과 결부시키려 하는 줄은 잘 몰랐다.

그러나 들은 풍월은 있어(그 당시에는 무서운 남산 모체의 이야기가 시중에 좌악 깔려 있었다)

빨갱이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을 뿐 아니라,

사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도 듣지 못했다.

밤낮으로 집요하게 알지도 모르는 서씨와 실감이를 하던 중 박정희가 죽었다

10월 27일 새벽, 아침 체조 녹음이 잘못되어 라디오 방송이 나왔다.

故 박정희 대통령 운운하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이. 우리는 기도했다.

죽은 자의 죄과에 대한 용서와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해.

잠시 후 보안과정이 유치장을 방문,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루 아침에 자세가 바뀐 것이다. 영치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구타도 없어지고,

심문도 부드러워졌다. 며칠 후, 부산 양정의 모부대로 옮겨졌다.

남자들은 그 부대 안에 남고 여자들(옥정애, 광승언, 박자점, 나)은

부산교도소 여자감방에 임시 수감되었다. 교도소는 고급호텔 같았다.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수들은 우리들을 친절히 대해주었다.

군부대에 몇 번 가서 조사를 받고는 박자점을 부산 여사에 남겨둔 채

마산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12월 9일 풀려났다.

- 이후 거취 및 특기 사항

출감 후 면소 판결을 받고 학교로 돌아와 4학년을 마치고 졸업 후 카톨릭 농민회에 잠시 갔다가 결혼하여 부산에서 살다가 마산으로 왔다. 경남여성회와 부설 성폭력 상담소 창립멤버로 일하다가 현재 한솔교육에 다닌다.

나는 말하려 한다.

그때 우리는 거창한 우국충정으로 똘똘 뭉친 투사가 아니라 단지 두려움에 갇힌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거리를 나섰고, 거리에서 합류한 거의 모든 시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또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은 무고한 시민, 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희생시킨 결과 가능 했었다는 것을.

나는 가끔 악몽을 꾸다.

꿈속에서 나는 이미 간첩이 되어 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고정 간첩과 접선하다 발각되어 도망을 치는데 한 발이 떨어지지 않아 찢힐때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에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간첩이 되었을 것이다. 차츰 인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것도 많다.

세상을 읽는 눈이 뜨였고 내가 여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늘도 고통에 찬 어려운 이웃의 소리와 그 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눈물을 보고, 듣고, 함께 한다. 또한 그때는 한 마음 한 뜻이던 동료와 시민들로 고통 가운데도 행복했고, 자신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흠고 쓸쓸하다.

